

태국의 지역 발전 계획과 불균형 발전 현황*

한 유 석**

국문초록

태국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방콕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경제 규모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타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인다. 반면에 북부와 동북부, 남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개발·저소득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특색, 인종·민족, 계급, 역사적 배경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각의 변수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상호 연관되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지역 발전은 ‘태국 경제와 사회 개발 위원회’(NESDB,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의 주도 하에 ‘국가 경제와 사회 개발 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이라는 이름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계획이 처음 수립된 1960년대에는 농업과 산업, 광업 등의 계획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업과 서비스 영역의 발전계획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앙 분권 계획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1990년대 말 이래로 태국 정부는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포함한 지역 발전 계획 및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NESDB와 ‘태국 공공사업 및 도시&농촌 계획청’(DPT,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이다. 두 기관은 국가 전체의 차원(NESDB & DPT)과 지역적 차원

* 이 논문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용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지역발전 현황과 균형발전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와 추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Plus 사업단 연구교수, hans169@naver.com

(DPT)에서의 협업을 통해 두 차원의 발전이 상보적 발전으로 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회랑 발전 계획이 본격화되었으며, 국경 지역에 경제특구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가장 최근 계획인 12번째 계획(2017-2021)에는 동부경제회랑 개발과 Thailand 4.0 사업이 주요 계획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중부 중심의 발전에서 탈피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던 태국의 청사진이 다시 중부 중심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지역 발전, 불균형 발전, 경제회랑, 경제특구, 타이랜드 4.0

I. 들어가며

2017년 기준 태국의 일인당 GDP는 6,593달러로 세계 73위이다. 2017년 태국의 세계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는 32위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3위(싱가포르 전체 3위, 말레이시아 전체 23위)이다(Schwab 2017: ix). 태국은 세계경쟁력 지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 지수에 있어서 아세안 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륙부 동남아의 주변 저개발국들, 즉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국가로서 이들 국가들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 저숙련노동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와라일락 대학교(Walailak University) 정치학/국제관계학과의 트린 아이야라 박사(Dr. Trin Aiyara)는 “중국계 타이족이 지배하고 있는 방콕의 정치적·경제적 권력 집중과 중앙집중화의 역사”¹⁾라고 표현한다. 이는 수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2013년 기준

1) 트린 아이야라 박사(Dr. Trin Aiyara, 와라일락 대학교 정치학/국제관계학과)의 견해. 면담일 2019/04/23.

방콕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경제 규모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중부 중심적인 발전 경향을 보여 왔다. 방콕(Bangkok) 30.8%, 싹뭇쁘라칸(Samut Prakan) 5.3%, 촌부리(Chonburi) 5.7%, 라영(Rayong) 7% 등 방콕을 중심으로 동부임해연안의 공업지대에 속한 도시들의 경제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NESDB 2015). 반면에 북부와 동북부 지역의 인프라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남부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3개도(빠따니(Pattani), 알라(Yala), 나라티왓(Narathiwat))가 저개발·저소득의 곤경에 처해 있다.

필자는 태국을 처음 방문한 2005년 이후 태국의 4개 지역, 즉 동북부(마하싸라감), 중부(방콕), 남부(빠따니), 북부(치앙마이, 매솿)에 최소 7개월에서 최장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각한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의 지역 불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태국의 지역 불균형 발전의 역사와 현 상황을 점검하고 태국의 지역 발전 개념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더불어 태국의 현 지역 발전 계획의 두 축인 경제회랑과 경제특구를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태국의 지역 불균형 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불균형 발전의 여러 변수들, 즉 지역적 특색, 인종·민족, 계급, 역사적 배경이라는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태국의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각한 상황, 특히 북부와 동북부의 저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태국의 지역 발전 담당기관과 지역 발전 개념의 변천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태국 지역 발전 담당기관의 대표적 기관인 ‘태국 경제와 사회 개발 위원회’(NESDB,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와 ‘태국 공공사업 및 도시&농촌 계획청’(DPT,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에 대해 살펴보고, 5개년 단위의 지역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발전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태국 지역 발전 개념의 두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경제회랑과 경제특구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대메콩지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내 국가들과 연계된 경제회랑 중 태국 영토 내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태국의 미래 육성 전략 산업의 첨단 기지인 동부경제회랑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해 국경 지역에 설치한 경제특구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문헌 연구와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1차적으로 한국의 해외 경제 전문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를 비롯해 태국 투자청(BOI,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NESDB, DPT, GMS,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4명의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²⁾ 태국의 미래 전략 사업의 현장인 동부경제회랑의 맵따퓏(Maptaput) 항구, 우타파오(U-tapao) 공항

2) 10명의 현지 전문가와 7개의 기관 관계자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오직 4명의 현지 전문가로부터 답변이 왔다. 각각은 환치완 부아댕 교수(Prof. Kwanchewan Buadaeng, 치앙마이 대학교 사회학/인류학과, 면담일 2019/03/23), 아란야 씨리펀 교수(Prof. Aranya Siriphon, 치앙마이 대학교 사회학/인류학과, 면담일 2019/03/17), 암퓌 마텐(Dr. Amporn Marddent, 와라일락(Walailak)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면담일 2019/05/06), 트린 아이야라 박사(Dr. Trin Aiyara, 와라일락 대학교 정치학/국제관계학과, 면담일 2019/04/23)이다.

과 램차방(Laem Chabang) 항구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그 실상을 확인하였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태국의 지역 구분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태국의 지역 구분 방식이 4개, 5개, 6개 구분 등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어떠한 지역 구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태국의 지역 구분 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림 1>과 같이 북부, 동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는 4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4개 지역 분류에서의 각 지역은 행정적 구분이라기보다는 과거 고대 왕조들의 중심지역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과거 각 지역에 고대 왕조가 출현하였는데, 이 왕조들의 중심지가 현재의 지역구분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림 1> 태국의 지역 구분(4개 지역)



출처: <http://asiapacific.anu.edu.au/maponline/base-maps/thailand-regions> (검색일: 2019/03/11)

한편, 중부 지역을 방콕 및 인근 지역(수도권), 서부, 동부로 세분

한 지도를 사용해 왔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의 인구와 경제력이 타 지역과 비교해 그 규모가 과대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상 불편을 주었기 때문이다(김홍구 2000: 59). 이와 같은 구분 방식은 통계적 편의, 주로 경제 통계의 편의에 의한 구분 방식으로 5개 혹은 6개의 구분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II. 역사적 배경과 지역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역사적 배경

전술하였듯이, 태국은 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구분할 때 크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북부와 동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는 이러한 구분 방식은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일정 정도 궤를 같이 한다. 이 절에서는 각 지역에 대해 간략히 개괄한 후,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국 중부는 방콕과 짜오프라야 강의 광활한 평야지대로 툰부리 왕조(연대)와 현 왕조인 랏따나꼬썬 왕조의 발흥지이다. 이 지역은 동북부(이싼)와는 팻차분 산맥에 의해 구분되고 서쪽으로는 미얀마와 경계를 이룬다. 과거 아유타야 왕조(Ayuthaya)의 심장부였고 현재 수도인 방콕을 포함하는 가장 인구가 많고 발전된 지역이다.

북부는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악 지대가 70%에 달할 정도로 산간 분지가 발달한 지역이다(문인원 2000: 3). 이 지역은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 왕조(Lanna)의 발흥지로서, 란나 양식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창출한 지역이다. 또한 북부의 남단에는 태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쑤코타이 왕조(Sukhothai)의 발흥지였던 쑤코타이가 위치해 있다. 산악 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상, 고

지대에 거주하는 다양한 고산족이 오래 전부터 정주하고 있다.

이싼(Isan)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태국 동북부는 코랏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과 동쪽으로 메콩 강이 흐르고 있고 남쪽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북부 사람들은 라오스어의 방언으로 분류되는 이싼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며, 캄보디아 접경에 위치한 지역 사람들은 크메르계 혈통으로 북크메르어를 모어로 하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태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현재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 태국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을 내부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로 분석할 정도(조흥국 2005)이다.

남부는 안다만 해와 타이 만에 둘러싸여 있고 일부 말레이 반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남쪽으로 갈수록 말레이 문화의 영향이 가미된 태국 문화가 발달했고, 오래 전부터 화인과 말레이인이 정주하였던 지역이다. 태국 남부인은 말레이인과의 혼혈이 많고, 무슬림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다.

이처럼 태국은 지리적으로 크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인종·민족, 종교, 계급, 역사적 배경에 따라 여러 분류가 가능하다. 이는 태국의 불균형 지역 발전을 다룰 때 지역이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인종·민족, 종교, 계급, 역사적 배경 등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첫째, 인종·민족이라는 변수이다. 태국은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타이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변부에 다양한 민족이 분포해 있다. 북부 지역의 여러 고산족, 남부의 말레이계 무슬림, 동북부(이싼)에는 라오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싼인이 있다. 또한, 태국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태국에 정착한 소수민족인 화인이 있다.

둘째, 종교라는 변수가 있다. 태국은 지역별로 종교의 차이가 일정

정도 존재한다. 태국 전역에 걸쳐 살고 있는 타이족과 동북부의 이싼인은 대부분 불교도이며, 남부 지역에는 말레이계 무슬림이 많다. 북부 지역 사람들도 대부분 불교도이지만, 북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고산족의 경우 기독교도의 수도 상당하다.

셋째, 역사적 배경이 있다. 지역별 다양한 역사적 배경은 근대 시기 영토 확정 이후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재구성되었다. 태국 동북부는 라오스의 이전 왕조였던 란쌍 왕조(Lan Xang)의 후예들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싼인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이다. 북부 사람들은 19세기 말까지 란나 왕국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콘 므앙’(Khon Muang)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³⁾ 남부에는 나컨씨탐마랏 왕국(Nakhon Si Thammarat)과 말레이계 무슬림이 세웠던 빠따니 왕국(Pattani)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급 역시 태국의 지역불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태국 내 지역적 불균형은 민족 배경 및 종교, 역사적 배경이라는 변수와 얽혀 계급적 성격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드 셔츠(쓰아 땡)와 옐로우 셔츠(쓰아 르앙)의 대립은 단순히 탁썬파와 반탁썬파 혹은 남부(옐로우 셔츠)와 북부·동북부(레드 셔츠)의 지역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상 중산층 및 상위 계급(옐로우 셔츠) 대 ‘프라이’(피지배계급)의 대립, 즉 동북부와 북부의 농민·서민층, 그리고 도시의 저소득층 대 엘리트, 기득권 세력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⁴⁾

3) 콘 므앙은 태국 북부 지방, 특히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일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라오스와 태국 동북부 이싼인, 미얀마의 산족(Shan), 중국 운남성 씽썬나(Sipsongpanna) 지역의 타이르족(Tai Lu(e)) 및 타이족(Thai)과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Forbes and Henley 1997: 7).

4) 레드셔츠 그룹은 태국의 봉건적 계급제도였던 썩디나 제도의 피지배계급이었던 프라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차별에 순종적인 프라이가 아닌 근대화된 프라이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한다. 한편, 레드셔츠가 보기에 옐로우셔츠와 그들에 우호적인 지식인들은 ‘왓뻬타이’(Thainess)라는 전통을 과거 회귀적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약용하는 세력이다(박은홍 2013: 99-100).

이는 역사적으로 형제국이라 불리던 란나와 란쌍 왕국(레드 셔츠)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남부(빠따니 왕국, 나콘 씨탐마랏 왕국 등) 옐로우 셔츠와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 더불어 역사적 배경에 더해 지역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주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계급적 성격이 더해져 지역주의가 계급주의적 성격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국의 지역 불균형 발전은 이처럼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각각의 변수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상호 연관되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결국 이처럼 다양한 층위와 변수를 고려하여 태국의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 발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지역 불균형 발전의 제대로 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불균형 발전의 현황

전술하였듯이, 태국은 방콕과 그 인근(수도권 일대)의 경제 규모가 60%를 상회할 정도로 중부 중심적 발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은 북부와 동북부, 말레이시아 접경 남부 3개도의 저발전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경제 격차는 ‘1인당 지역 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과 ‘1인당 도별 총생산’(GPP, Gross Provincial Product)의 지역 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15-2016년 1인당 지역 총생산 및 성장률

지역	1인당 지역 총생산(바트/연간)		성장률(%)	
	2015	2016	2015	2016
동북부	72,831	76,207	3.7	4.6
북부	94,999	98,999	-1.7	4.2
남부	132,627	143,544	4.6	8.2
동부	428,842	460,377	-0.8	7.4
서부	136,745	143,878	3.2	5.2
중부	257,521	258,839	6.1	0.5
방콕 & 수도권	410,467	427,199	4.7	4.1
GDP	204,459	215,455	3.5	5.4

출처: NESDB(2018: 43)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기준 동부 지역의 GRP는 460,377바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동북부 지역은 76,207바트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GRP는 약 6배에 이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GRP 수치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하면 동부, 방콕 및 인근 지역, 중부, 서부, 남부, 북부, 동북부 순이다. 동부, 방콕 및 인근 지역, 중부, 서부는 전통적인 지역 구분 방식, 즉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부에 속하므로 태국의 경제 발전이 중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방콕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포함하는 중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데 비해, 동북부와 북부의 저발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치는 GPP(Gross Provincial Product)이다.

<표 2> 2016년 1인당 도별 총생산(최상위 10개 도, 최하위 10개 도 비교)

최상위 10개 도(바트/연간)		최하위 10개 도(바트/연간)	
1. 라영	1,009,496	1. 넝부아람푸	49,443
2. 춘부리	548,877	2. 야쏘톤	54,047
3. 방콕	543,708	3. 깔라썬	57,798
4. 아유타야	460,223	4. 암낫짜런	59,319
5. 차청싸오	433,400	5. 나라티왓	61,115
6. 씨뭇싸켄	382,679	6. 매형썬	61,255
7. 뿌라친부리	378,669	7. 차이야폼	61,826
8. 푸껫	357,498	8. 쑤린	63,462
9. 씨뭇뿌라칸	337,026	9. 리이엣	64,052
10. 씨라부리	330,837	10. 씨짜껫	64,298

출처: NESDB(2018: 44)

2016년 GPP를 보면, 라영(Rayong)이 1,009,496바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푸껫(Phuket, 8위)을 제외하고 10위권 내 모든 도가 중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GPP 최하위 도는 넝부아람푸(Nong Nua Lam Phu)로 49,443바트이며, 5위 나라티왓(Narathiwat, 남부)과 6위 매형썬(Mae Hong Son, 북부)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GPP 1위인 라영과 최하위인 넝부아람푸의 차이는 20배를 상회할 정도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여실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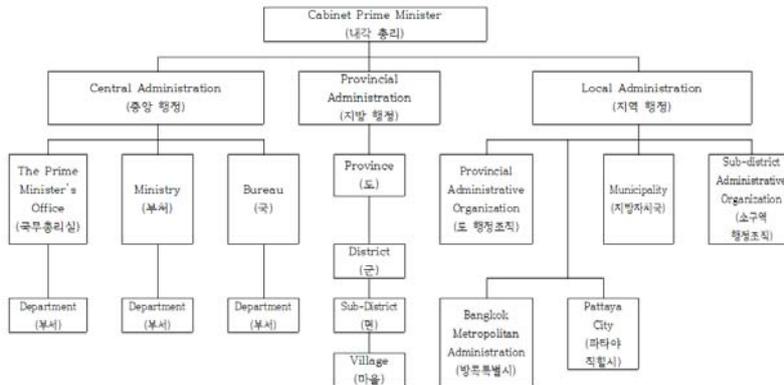
이처럼 상위 10개 도 중 푸껫을 제외한 지역들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태국의 발전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진행 중인 지역 발전이 경제회랑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주로 국경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Ⅲ. 지역 발전 담당기관과 지역 발전 개념의 변천

1. 지역 발전 담당기관

태국의 지방행정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 도, 군, 면으로 구성되며 1개 특별시(방콕), 1개 직할시(파타야), 77개도(Changwat, 방콕 포함), 878개 군(Amphor), 7,225개 면(Tamb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랜 기간 중앙(방콕)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져오다가, 1997년 10월 11일 공포된 헌법에 의거해 지역 분권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진전된 법규가 마련되었다(이병도 2005: 216). 이러한 태국 지방자치의 발달은 지역 분권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Poodee 2015: 1).

<그림 2> 태국 행정 체계 조직도



출처: Sakkayarojkun(2013)의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진술하였듯이, 태국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1990년대 말 이래로 태국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포함한 지역 발전 계획 및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국가 전체의 차원과 지역별 차원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두 차원의 발전이 상보적 발전으로 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태국 경제와 사회 개발 위원회’(NESDB)와 ‘태국 공공사업 및 도시&농촌 계획청’(DPT,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 이하 DPT)이다.

먼저 NESDB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SDB는 1950년 2월 15일, 당시 총리였던 ‘피분 송크람’(Phibun Songkhram, 임기: 1938~1944, 1948~1957)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국가적 경제 이슈에 대해 정부에 의견 제공 및 권고이며, 1961년 태국 최초의 경제 개발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때부터 NESDB는 태국의 국가 개발을 위한 중심 기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가 경제와 사회 개발 계획’(NESDP)이라는 이름하에 최초 6개년, 2차부터는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72년 사회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재의 명칭인 ‘국가 경제와 사회 개발 위원회’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NESDB는 15명의 경제 및 사회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회장, 9명의 각계 전문가, 직권을 가진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⁵⁾

다음으로 국가 단위 개발 계획의 집행 과정과 개발 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태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의 목표는 특정 개발 정책 입안 및 개정 시 정책 입안자와 정부 기관에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국가 정책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내각에 의해 승인되고 정부 법령에 의해 공포된 NESDB에 의해 작성된다. 1차부터

5) 출처: 태국 경제와 사회 개발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b.go.th> 검색일: 2019/03/29)

9차 계획은 지역 개발과 공간 개발에 주목하였으나, 그 이후의 계획은 특정 공간 개발보다는 생태 도시, 창조 도시, 경제특구, 친환경 도시 등 특정 아젠다를 설정해 진행되었다(Sakkayarojkul 2013).

NESDB는 방콕에 소재한 중앙 위원회와 태국의 전통적 지역 구분에 따라 4개의 지역 위원회로 구성된다. 4개의 지역 위원회는 논타부리(Nonthaburi, 중부지역 담당), 치앙마이(Chiang Mai, 북부 담당), 칸겐(Khon Kaen, 동북부 담당), 송클라(Songkhla, 남부 담당)이다. 이처럼 NESDB는 중앙 위원회와 4개 지역의 지역 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의 공간 개발, 이를테면 경제회랑 및 경제특구와 관련된 거시적 단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거시적 단위 산업에서 다룰 수 없는 사업은 DPT의 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DPT는 NESDB와 함께 국가 단위 공간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마을별, 동 단위별, 면 단위별, 지방별로 NESDB가 다루기 힘든 지역 단위 공간 개발을 전담해 담당하고 있다.

DPT는 내무부 산하 부서로 태국 정부의 관료 체계 조정 정책으로 탄생하였다. 2002년 10월 2일 공포된 관료 체계 개혁법에 따라, 도시 건조 환경 조성 및 통제 부문이 소위 DPT 소위원회와 합병됨에 따라 DPT는 중앙에 9개의 지국과 8개의 행정 조직, 전국 75개의 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이다.⁶⁾ 이와 같이 DPT는 NESDB와 함께 국가 단위 거시적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NESDB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지역 발전 개념의 변천

전술하였듯이, 태국의 지역 발전은 NESDB의 주도 하에 ‘국가 경

6) 출처: 태국 공공사업 및 도시&농촌 개발청 홈페이지(<https://dpt.go.th> 검색일: 2019/04/13)

제와 사회 개발 계획'(NESDP)이라는 이름하에 5개년 단위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1차부터 12차에 이르는 기간 동안 NESDB의 시기별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태국의 지역 발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NESDB의 시기별 개발 계획은 주요 내용을 토대로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차~2차 계획(1961-1971년)이다. 최초 1차 계획은 6개년 단위(1961-1966년)였으나, 2차 계획부터 5개년 단위로 시행되었다. 1차 계획과 2차 계획은 근대 국가 건설 단계의 초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기초 산업 위주, 특히 농업과 산업, 광업 등의 계획 위주로 편성되었다(NESDB 1964, 1967a, 1967b).

둘째, 3차~5차 계획(1972-1986년)에는 기존 1차 산업과 2차 산업 위주의 전 단계 계획에 더해 상업과 서비스 영역의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더불어 수도권과 중앙에 자본과 인구의 과대밀집 현상이 문제점으로 등장하면서 지방과 중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중앙분권 계획이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태국의 지역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NESDB 1972, 1977, 1982).

셋째, 6차~8차 계획(1987-2001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방콕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가구 소득 증대 및 빈곤 탈피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계획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NESDB 1987, 1992, 1997).

넷째, 9차~11차 계획(2002-2016년) 기간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하에 대메콩지역 국가들과 연계해 경제회랑 발전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주변국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경제특구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대륙부 동남아의 중심축이라는 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방콕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NESDB 2002, 2007, 2012).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번째 계획(2017-2021)이다. 네 번째 시기(9~11차) 계획의 연장선인 이 계획에는 경제회랑 및 경제특구를 개발해 지역별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21세기 들어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이 포함되었다(NESDB 2017).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2번째 계획에 동부경제회랑(ECC, East Economic Corridor) 개발과 Thailand 4.0 사업이 주요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이는 규모 및 예산 면에서 아세안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중부 중심의 발전에서 탈피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던 태국의 청사진이 다시 중부 중심으로 회귀했음을 시사한다.⁷⁾

동부경제회랑 개발은 민관 합작형태로 사회간접자본, 산업 및 혁신 단지, 관광 산업, 신도시 및 지역개발의 4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5대 주요 개발 프로젝트로 우-타파오(U-tapao) 국제 공항 건설, 램-차방(Laem Chabang) 항구 건설, 고속철도 및 복선철도 공사, 타깃 산업(바이오 이코노미, 자동차·전기전자·로봇산업, 항공·항공 유지보수, 의료 허브) 육성, 신 에코 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김민수 2017).

7) 태국은 2006년 탁신 총리 사임 이후 지속된 정치·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저성장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며 외자유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2011년 이후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도 외자유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빠라웃 정권의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하이테크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이다(정재완 외 2017: 7-12).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EEC의 기존 인프라 활용에 더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적·가시적 경기 부양을 꾀하였다.

<표 3> 시기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시기	주요 내용
1차-2차 계획 (1961-1971)	경제, 소득, 소비, 행정, 인력 등에 걸친 보편적 계획에, 농업과 협동 조합, 산업 및 광업, 전력, 교통통신, 공동체 기반과 사회복지, 공공 의료, 교육에 이르는 영역별 계획 수립
3차-5차 계획 (1972-1986)	기존 5개년 계획 항목에 더해 지역별 발전계획, 상업과 서비스 영역 발전계획 수립(3차), 소득 분배 계획, 무역과 관광 계획 수립(4차), 중앙분권 계획 수립, 각 권역별(북부, 남부, 국경지역 등) 계획 수립(5차)
6차-8차 계획 (1987-2001)	자연자원과 환경의 중요성 등장,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공기업 발전계획 수립 등 정부 주도의 성장 추구(6차), 신 경제 구역 발전 계획 및 삶의 질 개선 계획 수립(7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 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 시장 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8차)
9차-11차 계획 (2002-2016)	경제회랑발전 추구, 지역별 개발과 대도시 개발 그리고 경제구역별 개발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과 굿 거버넌스 중시
12차 계획 (2017-2021)	경제회랑발전 및 경제특구를 개발해 지역별 발전 도모,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 동부경제회랑(ECC, East Economic Corridor) 개발 및 Thailand 4.0 사업 추진

출처: 태국 경제와 사회 개발 계획 1차 - 12차(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계획을 토대로 필자 정리(<http://www.nesdb.go.th> 검색일: 2019/03/29)

태국은 이처럼 NESDB의 주도 하에 태국의 전체적인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 태국의 발전 정책은 국가 전체 혹은 지역 차원의 구분 없이 도시-농촌 개발을 주도, 감독, 통제 및 통합하기 위한 틀로서 수행되었다. 또한, 개발 계획에 대한 관련 기관들 간 응집력 있고 효율적인 협력이 결여되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천연 자원 관리, 도시와 공동체의 무질서 확대, 위험지역에의 정주, 산업 지대와 인접한 주거 지역, 자연 자원과 환경 악화, 빈곤 문제, 지역 간 불균형 개발, 도시 및 농촌 모든 지역 내 공공 서비스 및 시설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개발 비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및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Sakkayarojkul 201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2002년 DPT를 체계화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도시 계획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DPT는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공간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국가 전체 발전 계획은 NESDB와 함께 공조해 수립하고, 행정 단위별 지역 개발 계획은 DPT가 전담하였다. 이처럼 두 트랙(국가 전체-지역 단위) 공간 개발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 대중의 요구 충족, 국가 경쟁력 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유산 보호, 건강한 공동체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현재 5년 단위로 최장 50년(2057년)에 이르는 미래 계획을 통해 방콕(특별시), 파타야(직할시)와 같은 특별 지역을 포함한 77개 도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3개의 개발 프레임이 설정되어 있는데, 잠재력 있는 경제 구역 개발(경제회랑과 경제특구), 고른(모든 지역에) 성장 분산, 아세안 국가와 연계이다. 이를 통해, 인구 및 인력 분배, 경제 발전, 적절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도시-농촌 조직, 효율적 토지 이용, 교통·기술 및 커뮤니케이션·에너지 개발을 피하고 있다(Sakkayarojkul 2013).

IV. 태국 지역 발전 개념의 두 키워드: 경제회랑과 경제특구

현재 태국의 지역 발전은 주로 주변국과 개발협력의 연장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개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GMS 내 국가들과 연결된 경제회랑과 연계해 진행되거나, 주변국과의 국

경 지역에 10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태국 지역 발전 개념의 두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경제회랑과 경제 특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회랑과 지역 발전

<그림 3> GMS 경제회랑



출처: ADB(2018a: 13)

GMS 경제회랑 개발은 1992년 ADB에 의해 메콩 강 유역의 국가들(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간 발전 협력을 위해 착수된 사업으로 해당 국가 간 도로, 철도, 수로 등의 운송망을 연결해 이동을 촉진시켜 인구, 재화, 서비스, 자본 및 정보 등의 이동을 증대 및 촉진시키기 위한 초국가적 거버넌스 개발 프로그램이다. ADB는 다섯 분야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첫째, 인프라 연계 강화, 둘째, 국경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셋째, 민간 분야의 참여 독려, 넷째,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역량 증진,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를 통한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다(ADB 2008: 5; 이상국 2015: 236-237에서 재인용).

GMS 경제회랑 중 태국과 연계되는 회랑은 크게 세 개의 노선으로 동서경제회랑(EWEC, East-West Economic Corridor), 남북경제회랑(NSEC, North-South Economic Corridor), 남부경제회랑(SEC, South Economic Corridor)이다. 처음 도로망이 건설되던 1992년에 비해 현재의 도로망은 눈에 띄게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다(이상국 2015: 223).

태국은 GMS 경제회랑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GMS와 연결된 태국 내 3개의 경제회랑에, 최근 자체적으로 1개(동부경제회랑, EEC)의 경제회랑을 추가해 총 4개의 경제회랑으로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태국 정부는 도로 운송에 중점을 둔 교통 인프라 구축, 국경 간 운송 및 무역 증대, 경제적 잠재력(경제특구, 관광 명소 개발, 투자 유치)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회랑, 동서 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동부경제회랑 모두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변국과 무역 증대가 최대 관건이다. 동시에 중간 거점 도시(컨겐, 핏싸눌록 등)를 설정해 국경 지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도시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각 경제회랑 및 교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경제회랑은 중국의 쿤밍에서 미얀마 카친주와 산주, 태국 치앙라이를 거쳐 방콕을 잇는 교통로 및 중국 난닝에서 베트남 하노이, 라오스를 거쳐 태국 넝카이와 방콕을 잇는 교통로이다.

동서경제회랑은 GMS의 동서 경제회랑의 중심축으로 미얀마의 양곤에서 베트남의 다낭까지 1,320km에 이르는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의 태국 구간으로 구성된다. 태국 동서경제회랑은 태국 북서부 국경 도시 매솟에서 동쪽으로 핏싸눌록과 동북부의 중심지 칸겐을 거쳐 라오스 싸완나켓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묵다한에 이르는 지역을 잇는 회랑이다.

태국 남부경제회랑은 미얀마 남서부에서 시작해 태국 수도권을 거쳐 동쪽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회랑으로, 동서경제회랑의 남측에 위치해 방콕을 위시해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다. 크게 세 개의 소회랑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소회랑은 미얀마 남부의 다웨이에서 출발해 태국 깐짜나부리와 방콕,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거쳐 베트남 호치민까지 연결된다. 방콕에서 갈라지는 두 번째 소회랑은 캄보디아의 시엠립을 거쳐 베트남의 퀴이논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소회랑도 역시 방콕에서 갈라져 캄보디아의 캄푹을 거쳐 베트남 하티엔, 남칸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태국 동부경제회랑은 현재 태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임해지역(Eastern Seaboard)에 소재한 차청싸오, 촌부리, 라영 등 태국을 대표하는 산업지대에 태국의 미래 산업 프로젝트인 Thailand 4.0의 핵심 사업들을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다. 동부경제회랑 개발 추진 배경 및 의의는 회랑 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10대 집중육성산업을 유치해 중진국 탈피를 위한 Thailand 4.0 실현의 견인차로 삼을 계획이라는 데 있다.

<표 4> 태국 경제회랑별 지역 및 거점 도시와 주요내용

경제회랑	지역 및 거점 도시	경제특구(태국)	주요내용
남북경제회랑 (NSEC, north south economic corridor)	태국 치앙라이(Chiang Rai) 방콕(Bangkok) 넝카이(NongKhai), 라오스 후웨이싸이(HuayXai), 미얀마 따치레잇(Tacheleik), 중국 쿤밍(Kumming)	치앙라이, 넝카이, (송클라, 나라티왓)	크게 두 개의 소회랑으로 나뉨. 하나는 중국 쿤밍과 방콕을 잇는 교통로 구축. 다른 하나는 라오스 보텐에서 태국 램차방까지 교통로 구축. 윈난, 라오스, 미얀마 경제권 활성화 목적. 2013년 라오스 후웨이싸이와 태국 치앙콩 간 제4 우정의 다리 건설.
동서경제회랑 (EWEC, East West Economic Corridor)	태국 목다한 (Mukdahan) 과 매솟(Maesot), 라오스 싸완나켓(Savannakhet), 베트남 다낭(Danang), 미얀마 몰러마이(Mawlamyine)	딱, 목다한, 나컨파놈	베트남 다낭에서 라오스 싸완나켓과 태국 목다한을 거쳐 태국 매솟을 관통한 후 미얀마의 몰러마이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 태국의 피싸눌록(북부)과 컨깸(동북부) 같은 내륙도시를 물류 허브로 개발.
남부경제회랑 (SEC, South Economic Corridor)	태국 방콕, 라영(Rayong), 트랏(Trat), 캄보디아 꺼꽁(Koh Kong)과 스투암벨(SreAmbel), 프놈펜, 베트남 호치민	트랏, 싸깨오, 간짜나부리	태국 트랏과 캄보디아 꺼꽁의 국경 경제지대 조성을 계획. 장기적으로 시아누크빌(Sihanoukville)과 태국의 동부해안 산업공단을 연결. 세 개의 소회랑으로 나뉘면서 미얀마 남부, 태국 중부, 캄보디아와 베트남까지 연결됨.
동부경제회랑 (EEC, East Economic Corridor)	태국 방콕, 차청싸오(Chachoengsao), 촌부리(Chonburi), 라영(Rayong)		국경 부근 10개 특별경제구역(SEZ)에 지역기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산업 유치 계획을 했으나, 실제 투자가 저조해 주력산업이 이미 발달돼 있는 동부해안 지역을 EEC로 확장 발달시켜 집중 육성. 기존 남부경제회랑의 중심도시 중 이스트시보드 지역을 첨단산업화함.

출처: 김태윤 외(2011), GMS Secretariat(2018)을 토대로 필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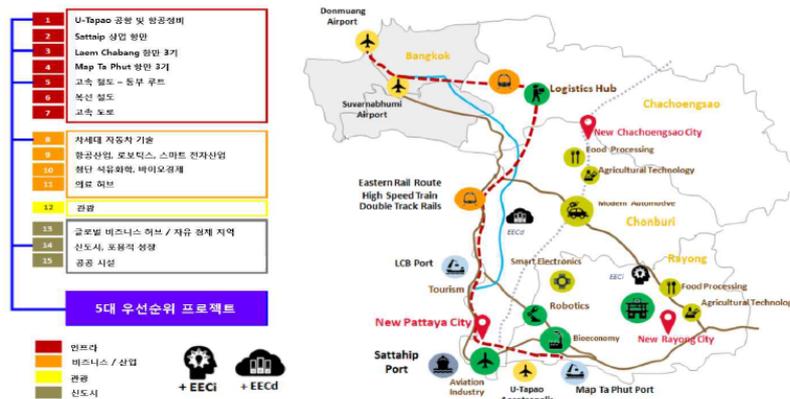
태국의 동부경제회랑은 태국 정부가 중진국 함정 탈피를 위한 전략으로 Thailand 4.0을 추진하기 위한 허브이자,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산업·스마트 시티·스마트 피플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기지이다(이재호 2018: 14). 10대 집중산업 육성은 스마트 산업 달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당초 국경 부근 10개 경제특구에 지역기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산업 유치를 계획했으나, 실제 투자가 저조해 주력산업이 이미 발달돼 있는 동부임해지역(Eastern Seaboard)을 EEC로 확장·발달시켜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 지역은 태국 최초의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출 산업단지이자, 인근항인 맵따푹(Maptaput) 항구에는 태국 최초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다. 처음 개발이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초기 20년 동안 연평균 수출 12%, 산업발달률 12%, 경제성장률 7%를 보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김민수 2017). 인근에 우타파오 공항과 램차방 항구가 위치해 있으며, 방콕과 이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기존의 기반 산업이었던 농업, 경공업, 중공업에 이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발전 단계이다. 이 단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동부경제회랑과 연계해 추진하고자 하는 Thailand 4.0 정책의 주요 골자는 기존 핵심 성장동력(First S-Curve) 5개 산업, 즉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의료/웰빙 관광, 농업/바이오기술, 미래형 식품)과 장기적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5개의 미래형 기술산업(New S-Curve), 즉 로봇틱스, 항공/물류, 바이오연료/바이오화학, 디지털, 의료 허브 산업을 연계·육성하는 것이다(Jomhadhyasnidh 2017: 3). 예를 들어, 차세대 자동차와 스마트 전자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인 로봇틱스 개발에 활용하고, 농업·바이오기술을 바이오연료/바이오화학 개발

에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연관 사업의 연계 육성 전략은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재호 2018: 15).

<그림 4> 동부경제회랑 지역별·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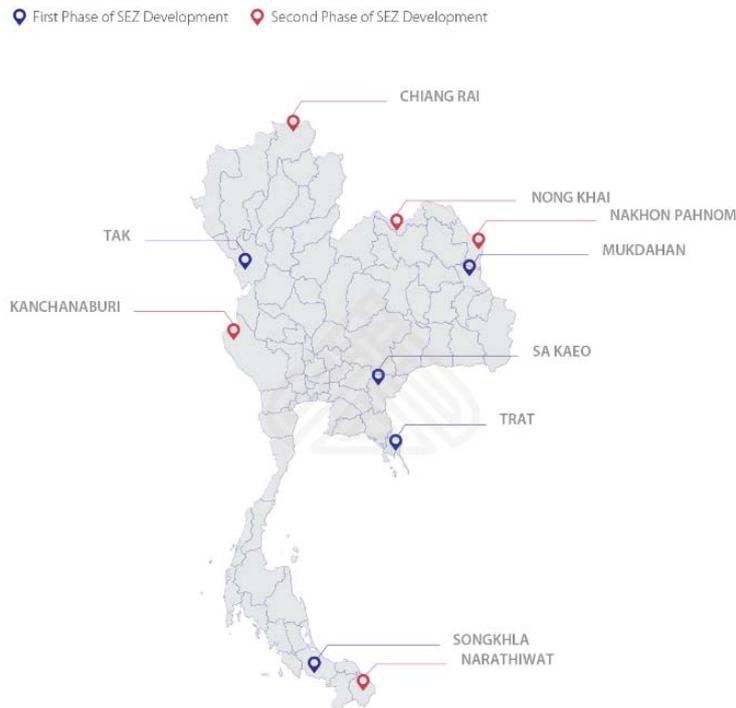
출처: Kanit 2017: 6(이재호 2018: 16에서 재인용)

2. 경제특구와 지역 발전

경제회랑을 통한 지역 발전과 함께 태국 지역 발전의 또 다른 축은 경제특구를 통한 지역 발전이다. 태국의 국경 지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지대개발에 기대가 크며, 이 국경 지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태국은 2015년 10개의 국경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였다. 경제특구 설립은 아세안(ASEAN)과 연계한 생산 기지 건설 및 이웃 국가들과 국경 지역 개발을 통해 태국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특구는 국경지역 인군이 아닌 도(province) 단위로 정의되는데, 10개의 경제특구의 총면적은 2,932km²이다. 1단계 경제특구는 딱(1,419km²), 묵다한(578.5

km²), 싸깨오(332km²), 트랏(50.2km²), 송클라(552.3km²)이며, 2단계 경제 특구는 넝카이(473.7km²), 나라티왓(235.2km²), 치앙라이(1,523.6km²), 나 칸파툼(794.8km²), 깐짜나부리(552.3km²)이다. 이들 경제특구는 GMS 국가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즉 GMS 회랑에서 국경 체크포인트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ADB 2018b: 8).

<그림 5> 태국의 경제특구



출처: <https://www.aseanbriefing.com> (검색일: 2019/04/18)

‘태국 투자청’(BOI,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은 경제 특구 지역에 다양한 투자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발표하였다. 경제특 구에 설립된 기업에 소득세 혜택, 부가가치세 면제, 기계류 수입 관

세 면제, 승인 절차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주노동자의 경제특구 통근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발표하였다(ADB 2018b: 8).

현재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태국 정부는 2015-2016년 인프라 및 체크포인트 투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다. 국경지대의 경제특구 지정은 외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주변국(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국경무역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개의 경제특구별 타깃 산업은 1) 농업, 어업 및 관련 산업, 2) 도자 제품(Ceramics products), 3) 섬유 산업, 4) 가구 산업, 5) 보석, 6) 의료 설비, 7) 자동차 및 기계, 8) 전자 제품, 9) 플라스틱, 10) 의약품, 11) 물류, 12) 산업 단지, 13) 관광 연계 산업이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딱, 깐짜나부리, 나컨파놈은 13개 산업 전체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싸깨오는 도자 제품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치앙라이는 도자 제품, 자동차 및 기계, 전체 제품을 제외한 10개 산업에, 프랏은 7개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넝카이는 5개 산업(농업 및 어업, 섬유 산업, 물류, 산업 단지, 관광 연계 산업)에, 목다한과 송클라는 4개 산업(농업 및 어업, 물류, 산업 단지, 관광 연계 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발 품목의 비중이 적다. 가장 심각한 경제특구는 나라티왓으로 현재 남부 국경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정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BOI 2015).

경제특구 10개 지역이 모두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음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태국의 지정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대륙부 동남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4개 국가(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기에 국경무역 및 국경을 개발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3개의

회랑(남북회랑, 동서회랑, 남부회랑)을 연결해 회랑 중간에 위치한 각 지역 내 중심도시를 거점도시로 지정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근 동부회랑에 첨단사업을 유치해 수도권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태국의 발전 계획이 두 개의 트랙(수도권+국경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V.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태국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방콕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경제 규모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60%를 상회하는 반면, 북부와 동북부, 남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개발·저소득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특색, 인종·민족, 계급, 역사적 배경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각의 변수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상호 연관되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지역 발전은 NESDB의 주도 하에 5개년 단위로 NESDP가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이 처음 수립된 1960년대에는 농업과 산업, 광업 등의 계획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업과 서비스 영역의 발전계획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앙분권 계획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1990년대 말 태국 정부는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별 경제 계획 수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를 위해 NESDB(국가 전체)와 DPT(국가 전체 및 지역 차원)의 상호 협업을 통한 상보적 발전을 꾀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GMS 권역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회랑 발전

계획이 본격화되었으며,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경제특구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장 최근 계획인 12번째 계획(2017-2021)에는 동부경제회랑 개발과 Thailand 4.0 사업이 주요 계획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중부 중심의 발전에서 탈피하려는 태국의 지역 발전 계획이 다시 중부 중심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태국에서는 다양한 변수, 즉 인종·민족, 종교, 계급, 역사적 배경이 지역이라는 변수와 결합해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 발전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다. 타이족 중심, 불교도 중심, 중앙 중심, 방콕 중심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어 왔으며, 중앙 집중화와 민족주의적 동화 정책은 다양한 그룹의 잠재력 개발에 방해가 되었다. 더불어 2014년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부 정권에 의해 2019년 3월까지 지역 단위의 모든 선거가 금지되면서 지역 행정기구는 레임덕에 처해 있었기에 발전 계획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⁸⁾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균등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이 다양성은 지역의 잠재력을 의미하며, 이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단위 경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부 지역에서 고산족과 란나 왕국의 유산은 종족 관광 및 역사문화 관광의 소중한 자원이 되며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다. 더불어 고산지대이기에 티크재가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의 지리적·환경적·역사적 배경을 활용해 동북부와 남부에서도 그 특수성을 활용한 지역 발전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점을 활용해 경제특구를 조성한 것처럼 각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에 걸맞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8) 퀴치완 부아댕 교수(Prof. Kwanchewan Buadaeng, 치앙마이 대학교 사회학/인류학과)의 견해. 면담일 2019/03/23.

9) 아란야 씨리폰 교수(Prof. Aranya Siriphon, 치앙마이 대학교 사회학/인류학과)의 견해. 면담일 2019/03/17.

〈참고문헌〉

- 김민수. 2017. “태국 정부가 새로 내놓은 동부경제회랑 개발 계획.”
코트라 보도자료.
- 김홍구. 2000. 『태국학 입문』.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2011.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인원. 2000. “자연환경.” 한국태국학회 편, 『태국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10
- 박은홍. 2013. “포스트-타신 시대의 ‘붉은셔츠’: 이념·조직·행동.”
『동남아시아연구』 23(1): 89-126.
- 이병도. 2005. “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한국국제지
역학회보』 4: 207-232.
- 이상국. 2015. “대메콩지역 연계성의 이상과 현실: 도로 교통을 중심
으로.” 『공간과 사회』 25(4): 221-263.
- 이재호. 2018. “한·태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
력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재완·이재호·김제국. 2017. “라마 10세 시대 태국 경제의 진로
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흥국. 2005. “태국의 지역 갈등에 대한 이해: 동북부 지방을 중심
으로.”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지』 1: 28-50.
- ADB(Asian Development Bank). 2008.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Time to Shift
Gears*. Manila: ADB.
- _____. 2018a. “Review of Configuration of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rridors.” ADB.
- _____. 2018b. “The Role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Improving
Effectiveness of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 Corridors.” ADB.
- BOI(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2015. “A Guide to Investment in the 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BOI.
- Forbes, Andrew and Henley, David. 1997. *Khon Muang: People and Principalities of North Thailand*. Sollo Development.
- GMS Secretariat. 2018. “Assessment of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rridors: Thailand.” ADB.
- Jomhadhyasnidh, Bhongsatiern. 2017. “Mastering Talent towards Thailand 4.0 presented at 9th Meeting of the OECD Southeast Asia Regional Policy Network on Education and Skills.” OECD(October 11).
- Kanit, Sangsubhan. 2017. “Eastern Economic Corridor.” https://www.set.or.th/thbigmove/files/Kanit_EEC.pdf (검색일: 2019/06/21)
- NESDB(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1964.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1961-1966): Second Phase 1964-1966.” NESDB.
- NESDB. 1967a. “Evaluation of the First Six-year Plan(1961-1966).” NESDB.
- _____. 1967b. “The Second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67-1971).” NESDB.
- _____. 1972. “The Third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72-1976).” NESDB.
- _____. 1977. “The Four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77-1981).” NESDB.
- _____. 1982. “The Fif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82-1986).” NESDB.

- _____. 1987. “The Six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87-1991).” NESDB.
- _____. 1992. “The S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92-1996).” NESDB.
- _____. 1997. “The Eigh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97-2001).” NESDB.
- _____. 2002. “The Ni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2002-2006).” NESDB.
- _____. 2007. “The T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2007-2011).” NESDB.
- _____. 2012.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2012-2016).” NESDB.
- _____. 2015. “Gross Regional and Provincial Product: Chain Volume Measures 2013 Edition.” NESDB.
- _____. 2017. “The Twelf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2017-2021),” NESDB.
- _____. 2018. “Gross Regional and Provincial Product: Chain Volume Measures 2016 Edition.” NESDB.
- Poodee, Huttaya. 2015. “Decentraliz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Case of Northeast, Thailand.”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kyo.
- Sakkayarojkul, Oran. 2013. “An Overview of Spatial Policy in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MLIT(Japan).
- Schwab, Klaus. 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World Economic Forum.

(2019.07.29. 투고, 2019.08.06. 심사, 2019.08.20. 게재확정)

<Abstract>

Reg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Non-Balanced Development in Thailand

HAN Yu Se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ailand has been experiencing an extremely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s of 2013, the central region in which Bangkok is located, dominates 60% of the national economy while the northern, northeastern, and southern regions suffer from underdevelopment. The drastic gap among regions is influenced by local socio-historical backgrounds such as racial/ethnic and class configurations. These intricately interrelated local variables have been a cause of the non-balanced development.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 has been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this matter and have implemented 5-year based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s (NESDP). In its initial period in the 1960s, the program focused on developing agricultural and mining industries and in the 1970s, it was expanded to financial and service industries. A decentralization policy was first adopted in the 1980s and strategies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as devised. Since the late 1990s, the Thai government has made extensive efforts to balance out the regional gaps through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 system and securing social

infrastructure. The NESDB and the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 (DPT) were the two organizations in charge of carrying out the program and they have been collaborating on a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o bring about a complementary development. Since 2000, Economic Corridors, which links countries along the Mekong river, as well as Special Economic Zones on the borders have been established. A more recent plan, the 12th plan (2017-2021) includes the Eastern Economic Corridor and Thailand 4.0, which moves its focus back to the central region, away from its original goal to promot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Regional Development, Non-balanced Development, Economic Corridor, Special Economic Zone, Thailand 4.0

